

필립 멜랑흐톤 (Philipp Melanchthon)의 신학

김진국
(동산교회)

[초록]

나의 주제는 필립 멜랑흐톤의 신학이다. 멜랑흐톤은 1496년부터 1560년까지 살았고 1518년부터 비텐베르그에 살았지만, 그가 오랫동안 독일의 교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까지 유럽의 교사로 일컬어진다.

멜랑흐톤은 종교개혁사에 있어 명암을 잘 보여준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초기 멜랑흐톤은 루터와 함께 개신교 신학과 교회를 체계화하는 일을 하였다. 그의 사역 중반기부터는 부셔와 칼빈과의 만남이후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활동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개혁교회와 신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멜랑흐톤이 루터 사후에 계승자로서 역할을 하는 중에 많은 논쟁들을 겪었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일했던 것으로 인해, 고루터주의자들에게 심한 반대를 받았다.

멜랑흐톤의 종교개혁적 가르침이 멜랑흐톤의 제자들과 그의 책들에 의해서 16세기와 적어도 17세기 중반까지 전해졌다. 멜랑흐톤은 오늘날 다리건설자(중재자)라고 불릴 수 있는데,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에, 교회와 교육기관 사이에,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사이

에, 새롭게 종교개혁과 개신교 정통주의 사이에, 정당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런 관점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이 멜랑흐톤과의 관계를 보면 좋을 것이다. 루터 없이 멜랑흐톤은 종교개혁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루터주의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칼빈없이, 그리고 부써없이 멜랑흐톤은 개혁파에 영향을 주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멜랑흐톤은 루터와 칼빈 사이에 서 있었다. 이 견해는 역시 멜랑흐톤의 신학에서 동일하게 파악된다.

멜랑흐톤의 신학적 입장은 바로 그렇다. 루터 신학의 체계화요, 루터와 칼빈 신학과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이런 관점은 그의 신학에 골고루 퍼져있다.

멜랑흐톤의 영향력과 효력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신학총론들과 아우구스신앙고백서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었다. 그의 영향력과 효력은 루터의 영향력과 함께 마틴 켐니츠, 데이비드 히트라우스에 의해서 루터주의에 전수되었다. 그로부터 비텐베르그 모델이 언급된다. 이 모델은 독일의 북부와 동부에 그리고 북유럽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 브라운쉬바익의 시찰자였던 켐니츠의 신학은 이 모델에 아주 좋은 예로서 제시된다. 그와 관련하여 요한 게르하르드의 신학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멜랑흐톤의 신학은 루터와 칼빈의 수용과 함께 우르시누스와 소니우스와 페첼과 스트리젤에 의해서 전해졌다. 그 밖에 하이델베르그 모델이 언급된다. 이 모델은 제네바 모델과 함께 서유럽과 중부유럽, 예를 들면 네덜란드, 특히 레이든과 스코틀랜드에 후에 영향을 준다. 하이델베르그의 교사 우르시누스의 신학은 이 모델의 아주 좋은 예로서 제시된다. 16세기 중후반의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은 베자와 플라누스와 마찬가지로 멜랑흐톤과 루터와 칼빈과 연관되어 진행하였다.

비텐베르크 영향(루터주의)과 하이델베르크 영향(개혁파)이 개신 교입장으로서 30년 전쟁 기간동안 레이든과 제네바와 취리히 영향력과 함께 도르트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서로 만난다.

이 효력과 수용이 아메리카로 가서, 후에 현재에 이르러 한국에 그리고 아시아에 계속적으로 전해졌다. 이런 특성화가 종교개혁적 개신교적 신학으로서 마틴 루터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묘사된다.

키워드: 멜랑흐톤, 루터, 칼빈, 개혁교회, 루터파

1. 들어가며

초기 필립 멜랑흐톤은 루터와 함께 개신교 형성에 있어서 신학과 교회를 체계화하는 일을 하였다. 그의 사역 중반기부터는 부써와 칼빈과의 만남이 후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활동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개혁교회와 신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가 루터 사후에 계승자로서 역할을 하는 중에 많은 논쟁들을 겪었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일했던 것으로 인해, 고루터주의자들에게 심한 반대를 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멜랑흐톤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멜랑흐톤을 어떤 종교개혁자로 묘사하는지에 따라 종교개혁사에 대한 연구자의 신학적 교회적 입장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멜랑흐톤은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의 영향력이 복합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네 가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루터주의자는 초기 멜랑흐톤만을 주로 가치를 두고 연구하며, 후기 멜랑흐톤은 루터의

신학을 벗어나 신학적인 변경을 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둘째로 개혁파에서는 루터와 멜랑흐톤의 신학과 교회의 공헌을 교회사속에 다루고, 특히 후기 멜랑흐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한 영향력에 더 비중을 둔다. 셋째로 연합된 교회적인 복음적인(Unierte kirchliche Evangelische) 연구자는 전 멜랑흐톤에 대해 중도적(복음적, 개신교적, 인문주의적)으로 서술하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고루터주의자들은 심지어 루터 신학의 변절자 정도로 묘사한다.¹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루터주의자들의 연구처럼 주로 초기 멜랑흐톤에 대해 비중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고, 21세기 즈음에서 개혁파적 연구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연구는 멜랑흐톤의 교회적이거나 신학적인 관심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독일의 교사’로서의 관점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커다란 흐름이라 볼 수 있다.²

이번 소논문에서는 멜랑흐톤이 종교개혁자로서 역할과 다른 종교개혁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독일의 교사로서 멜랑흐톤의 공헌을 다룬다. 그 가운데 그의 신학을 간략히 개괄하는 가운데, 그의 신학적 특징을 제시하고, 17세기까지 그의 영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첫째 부류의 연구자들은 멜랑흐톤 초기주석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티모씨 벵커트(Timothy Wengert), 빌헬름 마우러(Wilhelm Mauer)가 대표적이고, 둘째 부류의 학자들은 논자의 지도교수인 헤르만 셀더하위스(Herman Selderhuis), 빌헬름 노이저(Wilhelm Neuser), 크리스토프 슈트롬(Christoph Strohm) 등이며, 셋째 멜랑흐톤 서간의 편집 및 엮어서 출판하는 하인츠 사이블레(Heinz Scheible)이며, 멜랑흐톤 연구모음집(Melanchthon Studienausgabe)을 출간한 로버트 슈트페리히(Robert Stupperich), 멜랑흐톤과 그의 시대(Philipp Melanchthon und seine Zeit, 홍성사 역)의 저자 마르틴 용(Martin Jung), 멜랑흐톤 연구소 소장인 귄터 프랑크(Günter Frank) 등이다. 멜랑흐톤을 직접 연구하기 보다 칼빈과 칼빈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관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심을 동시에 가지는 리차드 뮐러(Richard Muller) 교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류의 저자들은 16세기 말 고루터주의자들이 그러했지만, 현대시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찾기가 어렵게 소수이다. 그럼에도 고루터주의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정죄했던 내용들이 그 때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부분적으로 퍼져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멜랑흐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독일 복음적인 교회(EKD)에서는 멜랑흐톤을 루터와 연관해서 종교개혁적 관점을 알리며,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2010년에 멜랑흐톤의 해로서 “종교개혁과 교육”이라는 면에서 부각하였다.

II. 종교개혁자 멜랑흐톤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가 비텐베르그 대학을 인문주의적 종교개혁적 학교로 세우기 위해 당대 대표적 인문주의자 로이힐린에게 의뢰했을 때, 그가 멜랑흐톤을 추천하여 1518년 헬라이어 교수로 초빙되었다. 이 시기 이후로 멜랑흐톤은 비텐베르그의 사람이 되었다. 멜랑흐톤은 루터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며, 복음을 배웠다. 그리하여 멜랑흐톤은 인문주의자를 넘어서, 종교개혁자가 되었고, 종교개혁가로서 루터의 충실한 동역자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다.³ 루터가 로마카톨릭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해박한 멜랑흐톤은 루터의 견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멜랑흐톤과 함께 번역했다. 그래서 루터성경이라기 보다 엄밀히 루터-멜랑흐톤 독일어 성경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루터는 멜랑흐톤의 신학총론을 격찬했고, 아우구스부르그 신앙고백을 지지하였다. 초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와 멜랑흐톤은 너무나 조화로운 동역자였다. 루터와 멜랑흐톤과의 신학적 견해차이는 본질의 차이는 아니었고, 그의 품성과 표현방식의 차이였으며, 그것은 멜랑흐톤의 신학을 다루는 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와 멜랑흐톤간에 견해차이나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루터는 그의 생애 마치는 날까지 멜랑흐톤을 지지했으며, 멜랑흐톤도 루터를 존중했고, 루터사후에까지 비텐베르그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다.

루터와 비견될 수 없지만, 멜랑흐톤과 긴밀히 교류한 종교개혁자는 부셔와 칼빈을 들 수 있다. 멜랑흐톤과 부셔는 1536년 성찬론의 일치를 보아서 비텐베르그 협약(Wittenberg Konkordie)을 이루었고, 멜랑흐톤은 부셔와 함께 쾰른의 종교개혁에(1543) 힘을 기울였으나, 황제의 권력으로 쾰른은 1547년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멜랑흐톤과

³ 멜랑흐톤은 에라스무스와 초기에 교제를 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들어선 후, 다른 길을 걸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적 관점으로 로마카톨릭을 도덕적 부패의 관점에서 비판은 하였지만, 평생 로마카톨릭 안에 머물러 있었다.

부씨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다.

비텐베르그와 칼빈은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데,⁴ 칼빈은 루터의 종교개혁적 사역을 언제나 존경하였고, 하지만 그 당대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루터의 거친 성품으로 인해, 작센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스위스) 연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루터는 칼빈을 좋게 보았고,⁵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멜랑흐톤과 칼빈은 1539년 첫 만남을 가진 후에, 친구와 동료로서 관계를 가진다. 멜랑흐톤과 칼빈과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임이 분명하나, 신학적 견해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다. 칼빈은 멜랑흐톤과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것도 있었지만, 항상 멜랑흐톤을 칭송했다. 칼빈에 따르면, 멜랑흐톤은 훌륭한 신학자이며, 성경주석가이었다. 칼빈에 대한 멜랑흐톤의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베자에 따르면, 멜랑흐톤은 칼빈을 지칭할 때, 그 유일한 신학자라고 존경했다.⁶ 하지만 멜랑흐톤은 예정론에 있어 칼빈과 견해 차이가 있었다. 자유의지 문제와 예정의 문제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보다 다른 측면을 보았다.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피기우스의 입장을 반대한 자신의 글을 멜랑흐톤이 높이 평가한 것을 보고, 그에게 그 작품을 헌정했다. 멜랑흐톤은 그 작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멜랑흐톤은 칼빈의 결정론적인 면은 거리를 두었다. 멜랑흐톤은 섭리와 우연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창시한 것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창조한 것이라 하였다. 칼빈은 자신과 멜랑흐톤의 차이의 원인은 멜랑흐톤이 인간 이성에 너무 치우치고,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보다 철학자로서 말했다고 생각했다. 스페이커르의 견해처럼, 이런 신학적 견해와 방식

4 헤르만 셀더하위스, “칼빈과 비텐베르그”, 『칼빈핸드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123-35; Herman Selderhuis, *Calvin und Wittenberg*, Calv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57-63.

5 루터, 『탁상담화』, 이길상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384.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환난을 당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의 공격을 잘 견뎌냅니다. 우리 세 사람, 필립 멜랑흐톤, 존 칼빈,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6 헤르만 셀더하위스, “칼빈과 비텐베르그”, 129.

의 차이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면은 개혁파 신학의 다양성을 이루는데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서 작성한 성찬론에 대해서 칼빈은 동의하고, 이 신앙고백서에(1540) 서명하였다. 칼빈은 1563년 예레미야 주석의 프레드리히 3세의 헌사에서 멜랑흐톤과 그의 저자들, 특별히 CA고백서들을 인정하며, 고루터주의자의 공격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

III. 독일의 교사로서 멜랑흐톤의 공헌

멜랑흐톤의 공헌은 다양하게 많은 영역에서 고찰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교회와 학교의 증개자로서의 공헌만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증개자

마틴 용은 멜랑흐톤을 “종교개혁의 사역 가운데 인문주의자(Humanist im Dienste der Reformation)”로 칭했다.⁸ 인문주의자로서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소개한다. “필립 멜랑흐톤: 증개자(다리건설자)”라는 책의 편집자 판 데어 폴은 멜랑흐톤은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교회와 학교,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사이의 증개자(다리건설자)라는 특성을 부각시켰다.⁹ 이것이 멜랑흐톤의 가장 폭넓은 공헌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연구가들에 의해 많이 알려져 있다.

7 Willem van't Spijker, “Die Diversität der reformierten Scholastik: Die theologische Methode Melanchthons und Calvins im Vergleich im Vergleich und beider Auswirkungen auf die reformatorische Scholastik,” in Frank, Günter/Selderhuis, Herman, J. (Hg.) Melanchthon und Calvinismus (Stuttgart) 2005, 316.

8 Martin Jung, “Philipp Melanchthon”, in Martin Jung und Peter Walter(Hg.) Theologen des 16. Jahrhundert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2), 154.

9 Van der Pol (Hg.), *Philippus Melanchthon - Bruggenbouwer* (Kampen: Kook 2011).

2. 교회와 학교(대학)의 중개자

멜랑흐톤은 독일 학교와 대학교의 재정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중세의 교육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학교를 갱신하는데 있어, 길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교회와 학교와의 유기적 연관성에 있어 중개자로서 일했다.

멜랑흐톤은 독일학교에서 중등, 고등교육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구상한 라틴어 학교에서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주기도문 읽기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둘째 과정은 라틴어를 공부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가르침은 멜랑흐톤이 ‘기독교의 삶의 총체’라 생각한 성경, 교리문답, 시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읽을 성경으로는 이사야, 로마서, 요한복음으로 보았다. 셋째 과정에서는 키케로, 버질, 오비디우스의 책으로 높은 라틴어 수업을 한다. 여기에 문체연습과 토론법 및 수사학 공부도 덧붙인다. 상급반 학생들은 라틴어로만 말해야 한다. 그는 상급 인문학교, 일명 고등학교(Oberschule)를 만들었다. 뉘엔베르크에 세운 학교가 유명한데, 이 학교는 김나지움이라고 불리는 현대 인문학 고등학교의 모범이 되었다.

멜랑흐톤은 비텐베르그 대학 뿐만 아니라, 튀빙엔대학(1533년부터), 프랑크푸르트 오더에 있는 대학, 마부역대학, 라이프치히 대학들의 새로운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¹⁰ 그는 이 대학들의 규정들을 새롭게 하였다. 그의 제자인 요아힘 카메라리우스를 통해,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위한 멜랑흐톤의 중요성은 매우 의미가 깊다. 오토하인리히(1556-1559) 선제후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육학적 학문적인 변혁을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연결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프리드리히 3세 이후에도 여전히 멜랑흐톤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지속적 영향을 준다.¹¹

한 가지 그의 연설가운데 예를 들면, 멜랑흐톤은 라이프치히 대학에 첫

¹⁰ Robert Stupperich, *Philipp Melanchthon* (Göttingen: Muster-Schmidt, 1997), 45.

¹¹ 참고, 이남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역사신학 논총 20집(2010), 58-84.

번째 박사 졸업식에서 루터와 멜랑흐톤의 제자 베른하르트 치글러(Bernhard Ziegler)의 졸업식을 축하하며 참석하였는데, 치글러가 했던 마지막 연설은 멜랑흐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알버티니센 작센안에 있는 교회와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밝힌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신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책들인 성경인데, 그것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한다.¹² 그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고대교회 교부들이 동방 교회나 서방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근거로, 교회에 항상 학교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연구하는 것을 멈추면, 복음의 빛이 꺼지게 된다고 말하였다.¹³ 그러하니 현명한 군주는 교회를 대학처럼, 보호하고 돌보아주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군주의 최고의 의무는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들 가운데 유지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연구는 이 높은 과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 말한다. 멜랑흐톤은 교회와 대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져 복음이 드러나고, 덕이 세워지도록, 함께 더불어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인문학적인 학문이 항상 유지되어 학문작업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지식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 심지어 멜랑흐톤에 따르면, 하나님이 학교를 놀라운 방식으로 보존하신다고 말한다.¹⁴ 대학은 대의적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즉, 직분을 수행하는 신의와 일치의 보존을 위한 노력(시 133)이 중요하다고 한다.

멜랑흐톤은 유럽의 대학들에 있어, 그의 교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대학조직 구성을 통해서, 그의 무수한 교과서들의 확대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17세기까지 크게 미쳤다.¹⁵ 이런 멜랑흐톤의

12 MELANCHTHON Deutsch II, "Schulen und Predigt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7), 21.

13 MELANCHTHON Deutsch II, "Schulen und Predigten", 25.

14 MELANCHTHON Deutsch II, "Schulen und Predigten", 29.

15 Herman Selderhuis, *Praeceptor Europae, Philippus Melanchthon over kerk, recht en universiteit*, Apeldoornse Studies no. 55, 2010.

교육과 대학에 대한 이상은 독일을 넘어서, 특히 제네바 아카데미와 레이든 대학과 그 밖의 네덜란드의 대학들에서 두드러지게 다시 발견된다.

IV. 멜랑흐톤의 신학

1. 신학적 방법론

멜랑흐톤이 개신교적 신학방법론을 처음 개척했다. 성경이 신학의 내용이며, 루터의 신학을 중시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학적 로치(Loci)들을 아리스토텔레스적 형식과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신학적 주제들에 있어서 간략한 요점들을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는 수사학(Rhetorik, Rhetorics)과 논증학(변증법, Dialektik, Dialectics)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주의적인 방법론을 삼았다.¹⁶ 수사학은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때 그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주제(명제)들을 설정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Loci는 중세적 방법인 총체(Summen)와 달리(중세의 스콜라주의와) 닫혀진 완벽한 체계를 제공하지 않고, 실천적 목표아래 주요점을 다루는 방식이다.¹⁷ 그는 변증학 연구에서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를 의존하였다. 그는 이런 학문들의 방법론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였다. 멜랑흐톤은 개혁진영의 조직신학 저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길을 걸어갔다. 혹자는 신학총론(1521)을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16-17세기 교의학적 저술들 가운데, 많은 책들이 Loci communes라는 제목을 가진다.

16 Nicole Kuroпка, *Philipp Melanchthon: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2002); -, *Vor Gott und in der Welt*, in *Fragmenta Melanchthoniana* Bd. 3 *Melanchthons Wirkungen in der europäischen Bildungsgeschichte*, hg. Von Günter Frank und Sebastian Lalla, 2007.

17 Martin Jung, *Philipp Melanchthon und seine Zeit* (Göttingen: V & R, 2010), 23.

멜랑흐톤은 신학총론(1553) 서문에 따르면, 누구나 배우거나 가르치려 하면, 주요내용의 부분을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연관성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 순서를 정할 때, “원인이 사역 앞에 간다(Ursach gehet vor dem gemachten werk)”는 원칙이 있다.¹⁸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창조, 타락, 구원 등을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주요내용 전체를 차서있게 배우고, 가르쳐야 함을 말했다. 그것을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르침(교리)과 역사”로 전했다.

2. 중요저작들

멜랑흐톤의 신학총론은 세 가지 시기로 나뉜다. 첫째는 1521년부터 1534년까지,¹⁹ 둘째는 1535년부터 1542년까지,²⁰ 셋째는 1543년부터 1559년까지이다.²¹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신학총론의 구조와 분량이 세 번의 시기가 많은 차이가 난다. 마치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1536년판, 1539년판(1543년, 1550년) 1559년판 세 시기로 증보되며 구조가 확대 변화되었듯이 그러하다. 그 제목을 축약하면, 첫째 시기는 신학총론(Loci communes), 둘째 시기는 신학총론(Loci theologici) 셋째 시기는 신학

18 Philipp Melancthon, *Heubartikel Christlicher Lere: Melancthon deutsche Fassung seiner Loci theologici*, nach dem Autograph und dem Originaldruck von 1553. hg. Von Ralf Jenett u. Johannes Schilling (Leipzig: Evang. Verl.-Anst., 2002), 80.

19 Philipp Melancthon, *Loci communes 1521*. Lateinisch-Deutsch. Übersetzt und mitkommentierenden Anmerkungen versehen von Horst Georg Pöhlmann, hg. Vom Lutherischen Kirchenamt der Vereinigten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Deutschlands (Gütersloh) 1997; 『멜랑흐톤과 부씨』, 이은선, 최윤배 옮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20 Philipp Melancthon, *Loci Communes, das ist, die furnemsten Artikel Christlicher Lere*, Übers. v. Justus Jonas (Wittenberg 1536); CR Vol. 21. 229-560.

21 Philipp Melancthon, *Melancthons Werke in Auswahl* (Studienausgabe), II-2 Bd., hg. Von Robert Stupperich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0).; CR Vol. 21. 601-1106; Philipp Melancthon, *The chief theological Topics*, translated by J. A. O. Preus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1).

총론(Loci praecipui theologici)이라고 칭한다. 멜랑흐톤이 둘째판을 가지고 증보하여 성도를 위해 독일어로(1555) 직접 번역한 것이 있다.²²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로마카톨릭을 반대하는 개신교 영주들과 도시 대표 19명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기 믿는 바를 표명하기 원했고, 황제는 그들에게 제국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들의 믿음을 명백히 논증하라고 했다. 개신교 관원들은 그 믿는 바를 “신앙고백(Confessio)”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 Das Augsburger Bekenntnis, 1530)이다.²³ 이 신앙고백서는 루터교리의 공식적 상징이자, 루터파의 주요 신앙고백이다. 로마카톨릭의 반대서(Die Konfutation)에 대하여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변증서(Apologia Confessionis Augustana, Apologie des Augsburger Bekenntnisses, 1531)로 답변했다. 그 후 멜랑흐톤은 154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근본내용은 유지하되, 약간의 변화를 수록하여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변경(Confessio Augustana Variata)를 작성했다. 그리고 최후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반복(Repetitio confessionis Augustanae, 일명 삭소니 신앙고백)을 작성함으로써, 다시금 작센 지역의 개신교 신앙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일치되게 그 시대적 주제들을 추가로 작성하여 표명하였다.

이 외에 시찰자 핸드북,²⁴ 요리문답들, 성경주석서들이 있고, 자유 7과학

22 Philipp Melanchthon, *Heubartikel Christlicher Lere*. 필립 멜랑흐톤, 『신학총론』, 이승구 역 (교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3 축어로 CA로 기록한다.

24 선제후령 작센처럼 넓은 지역에 종교개혁을 가져오려면, 시찰, 즉 방문이 필요했다. 종교개혁 시기에 관리와 신학자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시찰을 하였다. 목회자의 도덕성, 신학적 입장과 교육상황, 교회재산등을 조사했다. 시찰을 통해 루터가 알게 된 것은,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교회규범 형식의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멜랑흐톤이 이 일을 맡아서, 작센의 시찰 방침이라는 제목이 출간되었다. 멜랑흐톤이 쓴 시찰자를 위한 지침은 루터가 서문을 썼고, 멜랑흐톤이 “목회자를 위한 시찰 지침서(1528)”를 작성하여, 루터와 부겐하겐의 동의함으로써, 1528년에 출판되었다. 이 교회규정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증거하였다. 이 책에는, 개신교 신학의 가르침, 십계명, 기도, 고난 중 기독교인

부의 수많은 교재들을 저술하여 그 시대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3. 멜랑흐톤의 신학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는 그 당시 개신교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나타나 있고, 멜랑흐톤의 신학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신학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멜랑흐톤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을 로마카톨릭(스콜라주의)에 반대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신학총론 1521년과 1535년 사이의 변화를 주목해 보면, 반삼위일체론자와 그 밖에 그릇된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1535년에는 전체적인 신학적 체계를 진술하기 원했다. 그리하여 구조가 바뀐다. 1535년에는 신학적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하여부터 시작하여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멜랑흐톤의 신학을 가장 잘 체계화 하는 것은 신학총론 1559년판인데, 이것은 그 후대 16세기 후반부와 17세기까지 초까지 개혁파와 루터파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여 지던 것이었다.

멜랑흐톤의 신학과 신학적 내용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제한적인 주제들에 한정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만 다루고자 한다.²⁵ 그리고 그의 신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다.

첫째, 멜랑흐톤은 신론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신학총론 1521년에는 “신성의 비밀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중심에 대한 반대로 시작했으나, 약 3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릇된 자들의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정과 성자의 성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에 반대해서, 신학총론 1535년에서

의 태도, 세례, 성찬식, 회개, 고백, 죄에 대한 변상, 교회규정, 혼인문제, 자유의지, 기독교적 자유, 터키인의 위협, 예배의식, 성찬식위원회, 교구시찰직분, 학교건립과 교육내용이었다.

²⁵ 이후의 신학적 진술은 멜랑흐톤의 신학총론 1559년판은(신론, 교회론만 참고) 많이 참고하지 못했으며, 신학총론 1555년 독일어 판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근거로 말하는 점을 밝힌다. 멜랑흐톤 신학에 대해서 앞서 연구한 선행자들의 글(Jung, Selderhuis 등)을 참고하면서, 논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멜랑흐톤을 향해 루터주의자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자 한다.

는 신론을 가장 앞에 두고, 공교회적 고백과 교부들이 정립한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것을 1559년판 끝까지 견지한다. 그의 신론과 삼위일체론 그리고 기독교론이 모든 신학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가 창조를 논할 때에도, 삼위일체론이 기반이 되어 있다. 고대교회의 신조인 니케아 신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독교론에 있어서도, 칼케톤 신조에 토대를 두고 전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루터와 칼빈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동일하며, 루터는 존재적인 이해는 짧게 다루고 경륜적 삼위일체적인 내용에 더 숙고하며 적용하며,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점에서 경건에 초점을 두며, 멜랑흐톤에게는 삼위일체 구조적인 이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멜랑흐톤이 구조적인 신론을 펼쳐도, 중세 스콜라주의의 사변과는 반대로, 멜랑흐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한 지식으로 서술해 간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려지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²⁶ 신론의 시작을 한다.

둘째, 멜랑흐톤은 루터의 칭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국면으로 칭의를 새로운 순종과 연결지어 제시했다. 로마카톨릭에 반대해서,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의 칭의를 주장했다. 이런 가르침은 루터의 중심에 놓여 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그의 신학을 펼쳤다. 멜랑흐톤은 루터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역할로서, 그의 신학총론 1521년에 하나님 말씀의 신학으로서 성경안에 복음과 율법으로 구별하여 이해하고,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전해야 함을 말했다. 율법을 전함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의 약속과 의를 알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고, 죄와 회개와 칭의가 그 안에 전해진다고 한다. 그는 신학총론 1521년판에서 인간의 능력, 죄의 형태, 율법을 첫째부분에 다루고, 둘째부분에 복음, 은혜, 칭의, 신앙을 키포인트

²⁶ CR Vol. 21, 607; Jung, *Philipp Melanchthon*, 156-7.

로 제시한다. 이로써, 멜랑흐톤은 초기 종교개혁의 핵심을 전했다. 멜랑흐톤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4항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고 그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의와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충족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신앙을 통해서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롬 3장, 4장)”고 고백했다. “칭의의 내용이 죄용서이고, 신앙이 멜랑흐톤에 따르면, 동의(Zustimmung, assensio)와 신뢰(Vertrauen, fiducia)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증보자 그리스도 때문에 수여된 약속을 동의하는 것이고, 신앙은 증보자 그리스도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다.”²⁷ 마틴 음에 따르면,²⁸ 멜랑흐톤은 칭의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판단, 말씀하심으로, 의롭다하시는 것이라 한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관계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이 법정적 칭의(19세기 말부터)라는 말도 하고, 전가적 칭의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법정적 칭의라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은 화목된 평화적 하나님의 거룩케 하심의 측면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칭의가 새롭게 함에 대해 분리되는 것이 복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후기 멜랑흐톤은 칭의 뒤에 새로운 순종(선행)이 반드시 따른다고 주장한다.²⁹ 새로운 순종은 성령의 일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칭의의 선언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순종(선행, 회개)이 열매로써 뒤따르는 것을 이어서 연결한다(롬 8:12; 고전 6:9 요일 3:7-8; 엡 2:10). 이것이 소위 율법의 제 3 사용과 연결된다.³⁰

셋째, 멜랑흐톤은 종교개혁에서 율법의 제 3의 용도를 시기상 가장 먼저

27 Jung, *Philipp Melancthon und seine Zeit*, 24-25.

28 Jung, *Philipp Melancthon*, 158-160.

29 Phillip Melancthon, *the chief theological Topics* (Loci Praecipui Theologici 1559), translated by J.A.O. Preus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1), 171. 이런 전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 Melancthon, *the chief theological Topics*, 172.

알렸다. 율법의 제 3 사용은 그의 신학총론 1535년판에 처음으로 나타난다.³¹ 신적인 법(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해를 칼빈이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칼빈은 그의 신학에 있어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율법의 제 3 용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전개하였다.³²

넷째, 멜랑흐톤의 복음과 약속과 유언(Testament)의 가르침이 우르시누스의 은혜언약의 가르침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크리스토프 스트롬에 따르면,³³ 멜랑흐톤의 제자로서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개혁파 신학자에게 전수되었는데, 예정을 중심에 둔 신학자나, 언약 신학을 중요한 기능으로 쓴 신학자에게도 그러하다. 네덜란드 언약신학에 멜랑흐톤의 영향은 우르시누스뿐만 아니라 올레비아누스를 통해 전해진다고 한다.³⁴ 우르시누스는 자연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율법에 대한 멜랑흐톤의 지적을 그의 자연언약의 교리로 전개한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르시누스에게 학업한 고마루스가 자연언약과 초자연적 언약으로 설명한다.

다섯째, 멜랑흐톤의 성찬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성찬이해가 칼빈에게도 동의된 내용이라는데 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1540)서 10항에 “성찬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와 함께 성찬에 먹고 마시는 자에게 참되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했다. 멜랑흐톤은 성찬론에 있어서 루터교와 개혁교회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양자 간에 평화와 연합을 이루고자 했다.

여섯째, 멜랑흐톤은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보면, 신학총론 1521년

31 Melancthon, *Die furnemsten Artikel Christlicher Lere* (Ausgabe Wittenberg 1536), LXXXVIII.

32 Günter H. Haas, “Ethik und Kirchengzucht”, in Herman Selderhuis(Hg), *Calvin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332-3.

33 Christoph Strohm, “*Der Heridelberger Katechismus im Kontext des Calvinismus des 16. und 17. Jahrhunderts.*” In: *Macht des Glaubens - 450 Jahre Heidelberger Katechismus* (Göttingen, V & R 2013), 97-105.

34 Selderhuis, *Melancthon*, 32.

에 자유의지를 다루면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못 박고,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율법과 관련해서 해설한다. 루터주의 학자들은 자주 멜랑흐톤이 이런 초기 가르침을 버렸다고 하며, 후기에는 신인협력을 주장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쟁키우스가 보듯이 신학총론(1521)에서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멜랑흐톤의 견해는 최후까지 철회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쟁키우스의 판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³⁵ 그것은 멜랑흐톤이 그 가르침의 본질을 바꾸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건덕이 해롭지 않도록 적응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정론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멜랑흐톤의 견해를 그 당시 개혁파 신학자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일곱째, 교회론에 있어 첫째 조상 아담을 교회로 보는 것은 멜랑흐톤에게 있어서 창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³⁶ 이후로 그런 인식이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보인다. 멜랑흐톤은 루터의 교회론을 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회임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보편 기독교교회임을 증거하였다. 동시에 멜랑흐톤은 전체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선포와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를 중요시했다. 멜랑흐톤은 칼빈과 같이 1540년대부터 “교회”라는 장(locus)에서 주로 보이는 교회를 진술한다. 그 말이 그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간과했다는 말은 아니다. 멜랑흐톤은 루터와 같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확고히 했다. 그는 고대교회의 집사제도와 장로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작센 교회에서 실천되지는 않았다.

여덟째, 예정론에 대해서, 멜랑흐톤은 처음에는 절대예정론을 가르쳤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 차원에서 말했고, 교회의 위로차원과 성도의 덕을 세우는 관점을 더 무게를 두었다. 칼빈

35 제롬 쟁키우스, 절대예정론,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2001), 192-5. “멜랑흐톤은 최후까지 자신이 거거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전혀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주목하도록 하라.”

36 Stupperich, *Philipp Melanchthon*, 37.

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중예정을 강조를 두었고, 다른 한편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교리를 본다. 멜랑흐톤과 칼빈 사이에 서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견해가 가르치는 체계와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했다.³⁷

V. 멜랑흐톤의 17세기까지의 영향³⁸

멜랑흐톤의 제자 중에 루터주의자로서 활약을 했던 마틴 켐니츠, 데이비드 히트라우스와 같은 이들도 있고, 우르시누스, 페첼,³⁹ 소니우스, 빅토르 스트리겔과 같이 루터진영에서 개혁파로 전향한 그들의 제자들에게 멜랑흐톤의 정신이 살아 숨쉰다.⁴⁰

멜랑흐톤의 신학총론의 다양한 판들이 후세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칼빈의 신학총론 3판이 칼빈에 의해서 불어로 번역되었고, 프랑스 기독교인이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고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멜랑흐톤의 신학총론은 독일과 유럽에 교과서로 퍼져나갔다.⁴¹ 헬마 옹한스에 의하면, 1595년까지 신학총론(1559)이 35판이나 찍혔다.⁴² 그리고 1521년부터 1595년까지 로찌의 67가지의 라틴어판과 32가지의 번역본들이 있다고

³⁷ Spijker, “Die Diversität der reformierten Scholastik,” 311.

³⁸ 이번 장에서는 필자의 박사논문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참고. Jin Kook Kim, *Die reformatorische Amtslehre bei Melanchthon in seinen späteren Werken und im Vergleich Luther und Calvin* (Münster: Lit Verlag, 2017).

³⁹ Richard Wetzel, “Christoph Pezel (1539-1604),” in Scheible, Heinz (Hg.), *Melanchthon in seinen Schülern*, (Wiesbaden: Harrassowitz, 1997), 506.

⁴⁰ Heinz Scheible(Hg.), *Melanchthon in seinen Schülern* (Wiesbaden: Harrassowitz, 1997).

⁴¹ Selderhuis, *Praeceptor Europae*, 19–23; Helmar Junghans, “Philipp Melanchthons *Loci theologici* und ihre Rezeption in deutschen Universität und Schulen,” in Wartenberg, Günter (Hg.), *Werk und Rezeption Philipp Melanchthons in Universität und Schule* (Leipzig: Evang. Verl.-Anst., 1999), 9–30.

⁴² Jungans, “Philipp Melanchthons *Loci theologici* und ihre Rezeption”, 16

한다. 마틴 켐니츠는 1554년 이후에 신학총론방식을 사용했고, 요한 게르하르트도 1610년부터 1622년까지 그 방식을 채용했다. 개혁파 안에서는 무스콜로스, 베자, 발레우스, 부카누스가 사용했다. 스웨덴에서도 로찌 두 번째 판이 정당한 교의학책이었다. 신학총론은 17세기 후반부까지 독일 뿐 아니라 유럽 나머지 나라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고, 가장 의미있는 신학교과서였음이 분명하다. 멜랑흐톤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530, 1540, 1551년판 모두 후대에 교회사에 생동적으로 살아 있다.

멜랑흐톤은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졌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멜랑흐톤은 닐스 헤밍센에게 받아들여졌고, 데이비드 히트레우스에 의해서 스웨덴학생들이 로스톡에서 전달받았다. 스칸디나비아 학교교육에 있어서 멜랑흐톤은 “스칸디나비아의 교사”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헝가리에도 멜랑흐톤의 영향이 있다.

멜랑흐톤과 17세기 네덜란드와의 관계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도르트총회와 개혁신학자들의 관계도, 셀드하이스 교수가 연구했고, 멜랑흐톤의 신학적 내용과 경향이 도르트총회에서도 반영되었다고 한다.⁴³

하지만 독일 작센에서는 루터의 죽음 이후 멜랑흐톤과 그 제자들 가운데 필립주의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루터와 멜랑흐톤의 가르침에서 충실하려고 했지만, 고루터주의자들은 그들을 향해 공격했다. 강경한 루터주의자들과는 다르게 필리피스트들은 훨씬 온건한 경향이였다. 고루터주의자들은 필리피스트들을 숨겨진 칼빈주의자라고 공격하였다. 1574년 작센에서 박해가 시작되어서 멜랑흐톤의 사위 카스파르 포이처는 12년간 감옥에 감금되었다. 볼프강 크렐, 하인리히 몰러와 다른 사람들은 교수직을 잃었다. 크리스토프 페첼은 추방당했다. 이런 역사는 루터주의 역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이다.

43 Herman J. Selderhuis, “Melanchthon und die Niederlande im 16. und 17. Jahrhundert,” in Günter Frank, /Kees Meerhoff (Hg.), *Melanchthon und Europa*. 2. Teilband Westeuropa (Stuttgart: Thorbecke 2002), 303-24.

1. 개혁교회와 대학

칼빈과 멜랑흐톤은 신학적으로 일치하기도 했지만, 차이점이 있다. 이런 면은 결국 개혁파 안에 다양성이 나오는 요인이 되었다.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이 근원이며 규범이었고 교부들과 개혁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관점에 관해 성경적 가르침의 조항들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루터나 칼빈 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았고, 개혁파 전통의 숨결로부터 기원하기에, 평화적이고 보편교회적이다. 멜랑흐톤의 수납이 초기 칼빈주의자들에게 있다.⁴⁴ 멜랑흐톤은 교사요 조직신학자로서 그의 로찌방법론이 칼빈주의에 깊이 전파되었다. 그의 방법론은 피터 마티, 볼프강 무스쿨루스, 부카누스, 히페리우스, 스트리겔,⁴⁵ 다네우스,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진전되었다. 멜랑흐톤과 칼빈주의에 관계에 대해서 이미 연구되어 출판되었다. 멜랑흐톤의 지속적인 영향이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1622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⁴⁶ 특별히 셸트하위스 교수는 1583년부터 1622년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이 칼빈과 우르시누스 뿐만아니라 루터와 멜랑흐톤을 공통적인 종교개혁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⁴⁷ 멜랑흐톤의 가르침의 정신이 특별히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와 우르시누스에게 있다. 무엇보다 멜랑흐톤의 사상은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널리 전파되고 하이델베르그 학생들에게 계속 전해졌다. 우르시누스와 멜랑흐톤과의 관계는 익히 잘 알려

⁴⁴ Christoph Strohm, "Melanchthon-Rezeption im frühen Calvinismus," in Loehr, Johanna (Hg.), *Dona Melanchthoniana*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0), 433-55.

⁴⁵ Ernst Koch, Victorin Strigel (1524-1569). "Von Jena nach Heidelberg", in Schible, Heinz (Hg.), *Melanchthon in seinen Schülern* (Wiesbaden: Harrassowitz, 1997), 391-404.

⁴⁶ Herman J. Selderhuis, "Das Recht Gottes. Der Beitrag der Heidelberger Theologen zu der Debatte über die Prädestination", in Christoph Strohm u.a. Hg., *Späthumanismus und reformierte Konfession: Spätmittelalter und Reformation*. Neue Reihe 31 (Tübingen: Mohr Siebeck, 2006), 227ff.

⁴⁷ Herman Selderhuis, "Eine attraktive Universität, Die Heidelberger Theologische Fakultät 1583-1622," in Seldernuis, J. Herman/Wriedt, Markus (Hg.), *Bildung und Konfession*, SuR NR (Tübingen: Mohr Siebeck), 2006.

져 있고,⁴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 멜랑흐톤적인 내용이(구조, 예 정론 등) 많이 포함되어 있고,⁴⁹ 칼빈주의적인 것과 츠빙글리적인 것도 있다.⁵⁰ 우르시누스는 멜랑흐톤의 제자로서 칼빈과 불링거와 버미글리와 의 교제 속에서 개혁파 신학을 형성해 나갔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들은 직간접적으로 멜랑흐톤의 제자로 볼 수 있다.⁵¹ 그 가운데 게오르그 소니우스가 가장 멜랑흐톤의 신학을 잘 드러낸다. 멜랑흐톤의 신학총론 최종판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과서였다. 무엇보다 멜랑흐톤은 평화주의자로 묘사되는데, 유니우스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² 개혁파 신학대학교에서 다네우스, 베자, 그리고 무엇보다 게오르그 소니우스가 칼빈의 기독교강요보다 멜랑흐톤의 방법론에 더욱 연결되었다. 칼빈과 멜랑흐톤의 법에 대한 이해와 교회법에 대한 이해가 개혁파에 전파되었다는 점도 스트롬에 의해 밝혀졌다.⁵³ 다네우스에게는 멜랑흐톤의 영향이 윤리학에 있어서 명백히 보인다.⁵⁴

-
- 48 유해무, 김현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성약출판사 2006), 49-98:120-122; 스페이커트, 『칼빈의 유언과 개혁신학』 (서울: 성약출판사 2009), 33-34.
- 49 Derk Visser, "Zacharias Ursinus (1543-1583), *Melancthon's Geist im Heidelberger Katechismus*," in Heinz Schible(Hg.), *Melancthon in seinen Schülern*(Wiesbaden: Harrassowitz, 1997), 373-89. Selderhuis, "*Melancthon und die Niederlande im 16. und 17. Jahrhundert*," 311.
- 50 Lyle Bierma, "*The Structur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Frank, Günter/Herman Selderhuis(Hg.), *Melancthon und Calvinismus*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5), 43.
- 51 Selderhuis, "*Eine attraktive Universität, Die Heidelberger Theologisch Fakultät 1583-1622*," 4-5.
- 52 Selderhuis, "*Eine attraktive Universität, Die Heidelberger Theologisch Fakultät 1583-1622*," 6.
- 53 Christoph Strohm, "Ius Divinum und ius humanum: Reformatorische Begründung des Kirchenrechtes" in Gerhard Rau u. a. (Hg.), *Das Recht des Kirche*, Bd.2: *Geschichte des Kirchenrecht* (FBESG 50)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5), 115-73; Christoph Strohm/ Heinrich de Wall(Hg.), *Konfessionalität und Jurisprudenz in der frühen Neuzeit*, (Berlin 2009).
- 54 Christoph Strohm, "*Melancthon-Rezeption im frühen Calvinismus*," 446-50; -, "*Melancthon-Rezeption in der Ethik des frühen Calvinismus*," in *Melancthon*

도르트 총대들 가운데도 칼빈과 베자 그리고 멜랑흐톤과 우르시누스의 제자들로 구성된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항론파는 자신들의 근거로 멜랑흐톤에게 호소하지만, 그 생각은 반항론파 사람들에게 격렬하게 반대를 받는다.⁵⁵

멜랑흐톤은 종교개혁신학과 개신교 정통주의의 중개자라 볼 수 있다. 종교개혁적 신학이 개혁파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더욱 발전되고 정교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멜랑흐톤의 공헌이다. 이런 면모는 장로교신학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2. 루터교회와 대학

쿠어 작센과 브라운슈바이크에도, 신학총론과 시찰자를 위한 교본이 종교개혁의 뿌리로서 자리하고 있다.⁵⁶ 멜랑흐톤의 임직자를 위한 교본도 맥클렌부르크에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었다.⁵⁷ 특별히 멜랑흐톤의 영향은 마틴 켐니츠에게서 나타난다.⁵⁸ 그는 1563년 메클렌부르크의 시찰자였고, 그는 시찰과 시찰을 위한 교본에서 멜랑흐톤의 책을 자주 인용한다. 멜랑흐톤의 “임직자를 위한 교본”을 모델로 삼아 만들었고, 발전시켰다. 그는 신학총론과 임직자를 위한 교본과 루터의 교리문답으로부터 내용들을 뽑아 내고 발전시켰다.

��니츠는 고루터주의자들과 필립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을 피하였다.⁵⁹ 그는 개혁파와 논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루터에게로 돌아가 신학적 정립을

und Calvinismus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5), 143-9.

55 스페이커르, 『칼빈의 유언과 개혁신앙』, 43.

56 Phillip Melancthon, *Ordinanden Examen wie es in der Kirchen Wittemberg gehalten wird. Darinnen die Summa Christlicher...* Wittenberg 1559.

57 Phillip Melancthon, *Ordinanden Examen wie es in der Meckelburgischen Kirchenordnung gefasset ist*, Wittenberg 1554.

58 Martin Chemnitz, *Handbüchlein Der Fürnemsten Heuptstücke*. Hägglund, *Geschichte der Theologie* (München: Kaiser 1983) 210

59 Karl-Heinz Mühlen, “Im Zeitalter der lutherischen Bekenntnisbildung und Orthodoxie,” in Beutel, Albrecht (Hg.), *Luther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10), 468.

하였다. 쾨니츠는 루터주의자로 형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필립주의자로 평할 수도 있다. 물렌에 따르면, 쾨니츠에게 있어 멜랑흐톤은 루터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⁶⁰ 여러면에서 쾨니츠는 멜랑흐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문주의적 관점이나 종교개혁적 신학이나 그러하다.

숨겨진 칼빈주의자와 필립주의자들이 삭센에서 논쟁되고 핍박받는 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멜랑흐톤은 쿠어작센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규칙은 초기 멜랑흐톤의 저서들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멜랑흐톤의 사역은 루터와 부썌, 그리고 칼빈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 멜랑흐톤과 루터는 비텐베르그 종교개혁 안에서 부겐하겐과 유스투스 요나스와 견고히 하였다. 멜랑흐톤의 가르침은 순수루터주의안에 유지되나, 루터의 신학으로부터 벗어난 신학은 비판받았다. 이런 입장은 순수 루터주의에서 야곱 안드레아스와 마틴 쾨니츠가 일치신조(FC)를 작성함으로써 진전되었다. 모든 루터주의자들이 일치신조(FC)를 취하지는 않았다. 일치신조 없는 루터교 지역 교회들은 폼머른, 홀스타인, 브라인슈바이크 볼펜뷔텔과 제국도시 뉴엔베르크이다. 헤센-카셀과 안할트는 칼빈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멜랑흐톤의 사역은 부썌와 칼빈에게 영향을 주고 받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속하여 발전되었다. 비텐베르그 종교개혁과 스위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팔츠 안에서 그리고 독일 개혁파 안에서 만난다. 멜랑흐톤의 제자들, 자카리아 우르시누스, 빅토리 스티겔, 크리스토프 페첼은 독일 개혁파 초기형성에 기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멜랑흐톤의 사역은 루터와 함께 전체 루터주의와, 칼빈과 함께 개혁파에 효력을 나타냈다.

60 Mühlen, *Im Zeitalter der lutherischen Bekenntnisbildung und Orthodoxie*, 468.

VI. 나가며

멜랑흐톤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자로서, 그리고 비텐베르그에서 평생 교수로 사역을 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고, 교수이며, 학자였다. 그는 자유 7과학부의 교수이며, 동시에 신학교수였다. 그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배웠고, 그 가운데 의학이나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목회자와 신학자가 무수히 많았다.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의 스승이라고 칭할만 하다.

또한 그는 아우구스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개신교 신앙고백의 대표적인 저자이었다. 그의 불후의 명작인 신학총론은 신학교과서로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또 개신교 신학자들이 17세기까지 그것을 발전시키었다. 그는 루터와 종교개혁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정립하여 교회와 후대에 전해주었다. 그는 부셔와 칼빈과의 교제와 협력으로 개혁파 교회와 신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루터주의 안에서 루터의 신학의 변질자로 자주 부당하게 평가절하 당했지만, 그의 학문적인 영향력은 루터주의안에서, 개혁교회와 신학안에서, 그 후대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멜랑흐톤 연구가 더욱 되어서, 종교개혁과 개신교 정통주의 사이의 연속성 그리고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과 기독교적 학문관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지기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Abstract]**Phillip Melancthon's theology**

Jin Kook Kim (Dongsan Church)

The topic of this research is Phillip Melancthon's theology. Although Melancthon lived from 1496 to 1560, and had lived in Wittenberg Germany since 1518, he has been called not only German teacher for a long time but also European teacher (Praeceptor Europae).

Melancthon shows the light and shade well with respect to the Reformation history. In the positive point of view, early Melancthon systematized Protestantism theology and church with Luther. After meeting Bucer and Calvin, from the middle of Melancthon's ministry, he had a constant effect on Reformed Church and Reformed Theology through his disciples who acted within Reformed Church. But in the negative point of view, Melancthon was caught up many disputes while serving as a successor after Luther died. Also, he had to face severe objection of Gnesio-Lutheran because he worked for the coincidence and alliance of church.

The teachings of Melancthon's reformation was disseminated to mid-17C as well as 16C through his disciples and his books. Melancthon is called a bridge builder (arbitrator) today; he served as an arbitrator fairly between Lutheran and Calvinism,

between chu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 between the Reformation and humanism, between the Reformation and Protestant Orthodoxy.

To know this perspective more clearly, it will be good to understand Melancton in the mutual relation with Luther and Calvin. Without Luther, Melancton couldn't have been a reputation as a reformer and couldn't have entered Lutheran. Without Calvin, without Bucer, it wouldn't have been easy for Melancton to influence Reformed Church. Melancton was standing between Luther and Calvin. This view is equally grasped and applied in Melancton's theology.

Melancton's theological stance is right this. He systematized Luther theology and acted as a bridge between Luther and Calvin theology. This viewpoint is spread evenly in his theology.

Melancton's influence and effect continued through his Loci Commune and Augsburg Confession through his disciples. His influence and effect was handed down to Lutheran by M. Chemnitz and D.Chytraeus with Luther's influence. Wittenberg model is brought forward from this. This model had affected the northern part, eastern part of Germany and North Europe for a long time. Theology of M. Chemnitz, a superintendent in Braunschweig, are presented as very good examples of this model. This model leads to Gerhard's theology in regard to him. Melancton's theology was handed down to Reformed Church by Ursinus, Sohnius, Pezel, and Strigel with the acceptance of Luther and Calvin. Heidelberg model is mentioned as the second. This model affects Western Europe and Middle Europe such as Netherlands, Leiden, and Scotland with the

Geneva model. Theology by Ursinus, a teacher of Heidelberg, is presented as a very good example of this model. Theologians of Heidelberg in mid-late 16C are associated with Melanchton, Luther, and Calvin like Beze and Polanus to carry out their theology work.

The effect(Luthran) of Wittenberg model and the effect(Reformed) of Heidelberg model was the representative Protestantism stance. They met each other in the Synod of Dort and the Westminster Assembly with the influence of Leiden, Geneva, and Zurich during the period of 30-year War.

This effect and acceptance moved on to America and then was disseminated to Korea and Asia until now. This feature has been described continuously from Martin Luther to The Westminster Assembly as the Reformation and Protestantism theology.

Key Words: Melanchthon, Luther, Calvin, Reformed Church, Lutherism

[참고문헌]

1. 멜랑흐톤 원전

CR Vol. 21.

Melanchthon, Philipp. *Loci communes 1521*. Lateinisch-Deutsch. Übersetzt und mitkommentierenden Anmerkungen versehen von Horst Georg Pöhlmann, hg. Vom Lutherischen Kirchenamt der Vereinigten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Deutschland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7.

Melanchthon, Philipp. *Loci Communes, das ist, die furnemsten Artikel Christlicher Lere*, Übers. v. Justus Jonas, Wittenberg 1536.

Melanchthon, Philipp. *Melanchthons Werke in Auswahl* (Studienausgabe), II-2 Bd., hg. Von Robert Stupperich, Gütersloh, 1951-75.

Melanchthon, Philipp. *Heubartikel Christlicher Lere: Melanchthon deutsche Fassung seiner Loci theologici*, nach dem Autograph und dem Originaldruck von 1553, hg. Von Ralf Jenett u. Johannes Schilling, Leipzig: Evang. Verl.-Anst., 2002.

Melanchthon, Philipp. *the chief theological Topics . Loci Praecipui Theologici 1559*. trans. J.A.O. Preus,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1.

Melanchthon, Philipp. *Ordinanden Examen wie es in der Kirchen Wittenberg gehalten wird. Darinnen die Summa Christlicher...* Wittenberg, 1559.

Melanchthon, Philipp. *MELANCHTHON Deutsch I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1.

이은선, 최윤배 역. 『멜란히톤과 부씨』.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멜랑흐톤, 필립. 『신학총론』, 이승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 2차 문헌

- Bierma, Lyle. *The Structur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Frank, Günter/ Herman Selderhuis(Hg), *Melancthon und Calvinismus*.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5.
- Chemnitz, Martin. *Handbüchlein Der Fürnemsten Heuptstücke*; Hägglund, *Geschichte der Theologie*. München: Kaiser.
- Frank, Günter/Selderhuis, Herman, J. (Hg.) *Melancthon und Calvinismus*, Stuttgart, 2005.
- Jin Kook, Kim. Die reformatorische Amtslehre bei Melancthon in seinen späteren Werken und im Vergleich Luther und Calvin. Münster: Lit Verlag, 2017.
- Jung, Martin. *Philipp Melancthon*, in Martin Jung und Peter Walter(H.g.) *Theologen des 16. Jahrhundert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2.
- Jung, Martin. *Philipp Melancthon und seine Zeit*, Göttingen: V & R, 2010.
- Junghans, Helmar. *Philipp Melancthons Loci theologici und ihre Rezeption in deutschen Universität und Schulen*, in Wartenberg, Günter (Hg.), *Werk und Rezeption Philipp Melancthons in Universität und Schule*, Leipzig: Evang. Verl.-Anst, 1999.
- Mühlen, Karl-Heinz. *Im Zeitalter der lutherischen Bekenntnisbildung und Orthodxie*, in Beutel, Albrecht (Hg.). *Luther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Selderhuis, Herman J. *.Praeceptor Europae, Philippus Melanchthon over kerk, recht en universiteit.* Apeldoornse Studies no. 55, 2010.
- Selderhuis, Herman J. *Das Recht Gottes. Der Beitrag der Heidelberger Theologen zu der Debatte über die Prädestination,* in Christoph Strohm u.a. Hg., *Späthumanismus und reformierte Konfession: Spätmittelalter und Reformation.* Neue Reihe 31,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Selderhuis, Herman J. *Melanchthon und die Niederlande im 16. und 17. Jahrhundert.* in Günter Frank, /Kees Meerhoff(Hg.). *Melanchthon und Europa. 2. Teilband Westeuropa.* Stuttgart: Thorbecke, 2002.
- Selderhuis, Herman J. *Eine attraktive Universität, Die Heidelberger Theologisch Fakultät 1583-1622,* in Seldernuis, J. Herman/Wriedt, Markus(Hg.). *Bildung und Konfession.* Tübingen, 2006.
- Spijker, Willem van't. *Die Diversität der reformierten Scholastik: Die theologische Methode Melanchthons und Calvins im Vergleich und beider Auswirkungen auf die reformatorische Scholastik,* in Frank. Günter/Selderhuis, Herman, J. (Hg.) *Melanchthon und Calvinismus.* Stuttgart, 2005.
- Strohm, Christoph. *Melanchthon-Rezeption im frühen Calvinismus,* in Loehr, Johanna (Hg.), *Dona Melanchthoniana,* Stuttgart-Bad Cannstatt: Frommann-Holzboog, 2000.
- Stupperich, Robert. *Philipp Melanchthon,* Göttingen: Muster-Schmidt, 1996.
- Wetzel, Richard. *Christoph Pezel(1539-1604),* in Scheible, Heinz (Hg.), *Melanchthon in seinen Schülern.* Wiesbaden: Harrassowitz, 1997.

Visser, Derk. Zacharias Ursinus(1543-1583), *Melancthons Geist im-
Heidelberger Katechismus*. in Heinz Schible(Hg.), *Melancthons
in seinen Schülern*. Wiesbaden: Harrassowitz, 1997.

루터. 『탁상담화』,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셀더하위스, 헤르만. 『칼빈핸드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짱키우스, 제롬. 『절대예정론』.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2001.

판 엇 스페이커르, 빌렘. 『칼빈의 유언과 개혁신앙』. 서울: 성약출판사, 2009.